[찬양과 큐티 3]
“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 원하네”

유지연 집사 / 1998 / 페이지 수: 1

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 곡은 크리스천뮤직 중에 스프림춰송(Scripture Song)이라고 분류되는 음악으로 시편 19편의 마지막절인 14절을 노래한 곡이다.

다윗은 이 시편의 처음부분에 “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,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,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”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온 우주에 충만한 것과, 언어와 소리와 말씀이 그 충만함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다.

언어와 소리와 말씀이 그분의 완전한 법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줌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것이다.

“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”란 말의 원뜻은 “주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네” “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네” 또는 “주의 마름에 들기 원하네”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

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 - 부모와 형제, 친구와 직장동료 또는 아내나 남편… 모든 관계 속에서 나누는 모든 말과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또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, 계획하는 것들, 품고 있는 생각들, 그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.

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수없이 말하는 내 입술이 모든 말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?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고상하게 말하지만 교회를 벗어나서도 나의 언어, 소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?

우리가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은 물론,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에 있던지, 나의 입술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말의 억양조차도 또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생각의 근원들, 그 모든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길(주께 열납되기를) 기도한다.

<유지연 집사 / 휫셔뮤직 대표>

* 출처 : QT신문

http://file.cgntv.net